

# 18세기 프랑스의 프린트 직물에 관한 연구 -트왈 드 죠이 디자인을 중심으로-

김희선<sup>+</sup> · 구희경<sup>\*</sup>  
한양여자대학 섬유디자인과 교수<sup>+</sup>  
한양여자대학 섬유디자인과 교수<sup>\*</sup>

## A Study on the Printed French Textiles in the 18th Century - Focus on the Toile de Jouy

Hee-Sun Kim<sup>+</sup> · Hee-Kyung Koo<sup>\*</sup>  
Prof., Dept. of Textile Design, Hanyang Women's College<sup>+</sup>  
Prof., Dept. of Textile Design, Hanyang Women's College<sup>\*</sup>  
(2006. 11. 20 접수; 12. 4채택)

### Abstract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inted cotton textile industry of Europe in 17th-18th century, and specially investigate the development of the Toile de Jouy, printed French fabrics around the 18th century.

Generally, the Toile de Jouy has two different meanings. The first meaning is the popular printed cotton textiles produced by wood block printing, copper plate printing and roller printing techniques at Jouy en Joas factory in France, around 18th century. The second meaning is the monochromatic upholstery fabrics printed by copper plate. Actually, this monochromatic printed textiles were the most popular printed cotton fabrics with large scale scenic designs with people, trees, birds, buildings, mythical heroes, protagonists of novel and country scenes of shepherds, sheep and other animals manufactured by Jouy en Joas factory.

Main issu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features of pattern, color and classify types of patterns expressed on the Toile de Jouy fabrics according to printing techniques such as wood block printing, copper plate printing and copper roller printing. And this study is also to analyze on origins of the variety of names called the printed cotton textiles in those day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help to understand the knowledge of printed cotton textiles in Europe and be effectively applied to develop printed fabric design in the textile industry.

**Key Words:** Printed French Fabrics( 프랑스 프린트 직물), Toile de Jouy(트왈 드 죠이),  
Printing Techniques(프린팅 기법), Feature (특징), Classification(유형화)

---

<sup>+</sup>Corresponding author ; Hee-Sun Kim

Tel. +82-19-449-2853, Fax. +82-2-2290-2438

E-mail : naklee@zaigen.co.kr

## I. 서론

직물에 문양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직조에 의해 문양을 만드는 선염법과 옷감을 직조한 후 염료로 물을 들어 문양을 표현하는 후염법이 대표적이다. 후염법은 직물위에 직접 그림을 그려 무늬를 표현하는 페인팅법(painting, 繪染)과 일정한 부분을 염색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문양을 만드는 방염법(Resist Dyeing), 옷감을 염색하기 전에 문양부분에 매염제를 가하여 매염제가 칠해진 부분에만 염색이 되도록 하는 매염제법(mordant dyeing), 문양을 인쇄하듯이 찍어 만들어내는 프린트법(printing, 捺染), 그리고 탈색 반죽을 이용하여 염색된 직물의 일부분의 색을 제거하여 문양을 만드는 발염법<sup>1)</sup> 등이 있다.

직물의 역사를 살펴보면, 현대직물 디자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프린트디자인은 17세기 이후 유럽에서 급속도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직물의 유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대로부터 문양을 만드는 방법은 주로 태피스트리나 문직물처럼 직조에 의해 문양을 만드는 방법이나 손으로 직접 그리는 페인팅법과 바틱, 이kat, 홀치기 등과 같은 방염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인도는 17세기에서 19세기동안 거대한 양의 텍스타일을 세계 도처에 수출했다.<sup>2)</sup> 유럽에서 프린트디자인이 발달하게 된 동기는 동서양의 무역이 활발하였던 17세기에 인도의 프린트된 면직물이 유럽에 소개되면서부터이다. 인도의 면 프린트직물은 14세기부터 발달되어졌는데, 엄밀히 말해 프린팅 기법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문양을 그리는 페인팅 기법과 바틱 또는 스텐실 등을 이용한 방염법, 매염제법, 그리고 이들을 병용한 기법 등으로 문양을 만들었다고 한다. 17세기에 유럽의 상인들은 가볍고, 세탁의 쉬우며, 컬러가 아름다운 인도의 면직물이 무역품으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여 수입하였다.<sup>4)</sup> 예상대로 인도의 면 프린트 직물은 유럽인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대단한 유행을 이루었다. 그러나 수입한 직물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모조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개기가 되어 제작하기 쉽고 합리적인 디자인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프린트기법들과 재료를 개발해 내어 프린트 기술의 진보를 이루게 하였던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인도의 면 프린트 직물의 인기는 대단하였다. 1658년에 개최된 상저메인 페어(Saint Germain fair)에 처음으로 인도의 면 프린트직물이 프랑스 시장에 소개되자, 순식간에 호응을 얻게 되어 의복용과 인테리어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프랑스 역시 수입한 직물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모조품을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1675년경에는 보다 제작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목판 프린트 기법(wood block printing)을 사용하여 프린트 직물 디자인 발전에 시동을 걸었으며,<sup>5)</sup> 인도와 유럽적인 미를 가미한 절충된 디자인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특히 18세기 중반(1759년 경)에 등장한 크리스토퍼 쾰립 오버캄프(Christophe-Philippe Oberkampf)가 세운 쥘이 앙 쥬사스(Jouy en Josas)공장이 프린트 직물 발전에 기여한 바는 크다. 쥘이 공장은 햇빛과 세탁에도 색이 바래지 않는 염료를 사용하였을 뿐 만 아니라, 탁월한 문양 디자인과 새롭고 발전된 프린트 기법을 사용하여 유럽의 프린트직물의 유행을 선도하였다.<sup>6)</sup>

17, 18세기 경 프린트된 면직물을 부르는 명칭은 인디엔(Indiennes), 트왈(toile), 트왈드쥘이(Toiles-de-Jouy), 캘리코(calico), 친츠(chintz) 등 다양하다. 이들은 서로 다른 이유와 유래로부터 명칭이 붙여졌으며 국가에 따라 다르게 불렀지만 그 당시 염색 기법에 의해 문양을 만든 직물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트왈드쥘이(Toiles de Jouy)라는 명칭은 원래 '쥘이 공장에서 만든 직물'이란 뜻의 프랑스어로, 엄밀히 말해 쥘이 공장 제품의 면 프린트 직물을 부르는 용어였다. 그러나 쥘이 공장의 히트 상품이었던 단색의 동판프린팅직물에 기인하여, 생산지에 관계하지 않고 단색의 동판프린트로 제작한 직물을 명칭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적 의미의 자료를 연구 자료로 하였다.

18세기에 프린트직물은 의류용 보다는 인테

리어용(uphostary)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고한다. 에스닉 트렌드가 패션의 중요한 키워드를 이루고 있는 요즘, 18세기에 유행했던 트왈드쥘이 직물디자인이 텍스타일 디자이너에 의해 인테리어용은 물론 의류용 직물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현대의 소비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본 연구자는 현대 프린트 문양 디자인과 프린트 기법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17,18세기 경의 면 프린트 직물에 대해 언급하고 연구한 자료는 많지만, 그 시대의 면 프린트직물을 지칭하는 명칭이 다양하여 혼란을 주고 있으며, 그 당시의 유럽의 프린트디자인을 선도한 프랑스 프린트 직물 디자인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자료가 없어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연구의 목적은 17-18세기의 면 프린트 직물 산업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그 시대의 면 프린트직물을 지칭했던 다양한 명칭들을 유래를 통해 살펴보고, 유럽의 프린트 직물의 유행을 선도하였던, 프랑스의 쥘이 앙 쥬사(Jouy en Josas)공장에서 제작한 트왈드쥘이 직물의 생산 기법에 따른 디자인 특성을 문양 및 컬러를 중심으로 분석 제시함으로써, 텍스타일 디자인 전공자와 텍스타일 디자이너에게 그 시대의 프랑스 프린트 직물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고, 현대 텍스타일 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연구의 연구 방법은 국내외에서 출판된 논문과 전문서적, 인터넷 자료 등을 분석한 문헌 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트왈드쥘이 직물디자인 분석 자료는 쥘이 앙 쥬사(Jouy en Josas) 박물관과 뮈루스(Mulhouse) 박물관 등에 보존되어있는 1759년부터 1843년까지 쥘이 공장에서 제작한 프린트직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17-18세기 프랑스의 직물 산업

17세기, 유럽은 강화된 왕권을 중심으로 중상주의 경제정책에 힘썼던 시기이다. 루이 14세

(1643-1715)가 통치하였던 프랑스도 콜베르(Colbert) 수상 아래 가장 발달된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였다.<sup>7)</sup> 중상주의 정책이란 나라의 부를 늘리려고 상업을 증히 여기고, 보호 무역주의의 입장에서 수출 산업을 육성하여 무역 차액으로 자본을 축적하려는 정책이다. 즉 산업자본을 위해 국내시장을 확보하고, 국외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보호주의 제도로써 외국제 완제품의 수입금지와 제한, 외국산 원료의 수입 장려, 국내 상품의 수출장려, 국내원료의 수출금지 등의 조치를 국가가 입법 및 관세정책으로 통제하는 정책이다.<sup>8)</sup>

특히 루이14세는 예술문화와 직물산업 발달에 주력하였는데 1667년 콜베르(Colbert)에 의해 직물 공장이 독립된 산업으로 번성해 가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따라서 18세기 이후 프랑스는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유럽의 직물문화를 리드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프린트 직물 디자인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영국 및 그 밖의 나라의 프린트 제조업자들은 프랑스디자인에 많이 의존했다고 한다.<sup>9)</sup>

16세기부터 발달한 프랑스의 실크산업은 17, 18세기에도 유능한 디자이너들과 문직기를 다루는 뛰어난 직공들의 덕으로 리옹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패턴 실크 직물디자인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태피스트리 산업 역시 플랑드르를 중심으로 번성하였다.<sup>10)</sup>

한편, 중상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프랑스(1604년 설립, 1664년 재건)를 비롯하여 영국, 네덜란드 등의 유럽 제국은 인도와의 무역을 위하여 동인도 회사를 세웠는데, 동인도 회사를 통해 인도의 면 프린트직물이 소개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658년 상저메인 페어(Saint Germain fair)에 처음으로 인도의 천이 프랑스시장에 소개되어 큰 호응을 얻게 되었는데, 수입된 직물로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지경이었다. 또한 1684년에는 삼(현재의 태국으로 추정)의 대사가 면 프린트 직물로 만든 옷을 입고 베르사이유 궁전에 루이 14세를 방문하였는데 이것으로 인해 더욱 더 붐을 이루게 되었

다.<sup>11)</sup>

인도의 면 프린트직물의 인기와 수요가 증가되자 목판 블록 프린팅기법을 개발하여 모조품을 만들었고, 오히려 블록 프린팅 기법을 인도로 수출하였다. 그것이 제조 방법을 쉽게 하여 가격이 내리게 하였으며 또한 인도인들은 유럽인의 미적 감각에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기도하였다.<sup>12)</sup>

나날이 번성하는 면 프린트 산업에 위협을 느낀 실크와 태피스트리 직공들은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1687년 이후에는 인도에서 수입하였거나 프랑스 내에서 생산한 천을 막론하고 판매를 금지하고 목판을 파괴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자국의 텍스타일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면 프린트 직물의 수입과 제조 그리고 판매를 반대하는 법률을 통과 시켰다.<sup>13)</sup>

결국 프랑스에서는 1686년부터 1759년(영국은 1674년부터 1774년)까지 금지령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금지령이 내려진 기간 중에도 면 프린트 직물을 원하는 수요는 수그러들지 않고 증가되었으며, 밀수입품과 자국생산품의 밀매가 계속 되었다고 한다.

결국 면 프린트직물 금지령은 1745년에 약화되고, 이어 1759년 해지되었다. 금지령이 해지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18세기 중엽부터 프랑스는 중상주의정책 대신에 각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도록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사회를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는 ‘정부 무간섭 주의(laissez-faire)’를 모토로 한 ‘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금지령이 약화된 1745년 이후로 물루스(Mulhouse), 마르세이유(Marseilles), 앵거스(Angers), 루앵(Rouen)지역에 프린트 공장이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1759년에 금지령이 해제되자마자 크리스토퍼 펠립 오버캄프(Christophe-Philippe Oberkampf)가 베르사이유 근교의 죠이 앙 죠사(Jouy en Josas)지역에 면프린트 직물 공장을 세웠는데, 이 공장을 일명 죠이 앙 죠사(Jouy en Josas)공장 또는 줄여서 죠이(Jouy) 공장이라고 불렀다. 이 죠이 공장은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중엽까지 많은 프린트 직물을 제작하였는데,

죠이 공장이 제작한 프린트 직물은 프랑스 내 뿐 만 아니라 유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2. Christophe-Philippe Oberkampf의 Jouy en Josas 공장(1759년 - 1843년)

크리스토퍼 펠립 오버캄프는 조부와 그의 아버지 역시 염색공으로 11살 때부터 아버지 공장에서 수습공으로 일하면서 실력을 쌓았다. 1759년 공장을 세운 후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였고 새로운 기법을 시도해 보는 시대에 민감한 운영인이었다. 그는 항상 최고의 품질 유지에 힘썼으며 디자이너도 최고의 사람만 고용했다. 소재는 직접 인도로부터 수입한 품질 좋은 면포를 사용하였고 후에는 면방직 공장을 사들여 양질의 면포를 자급하였다. 또한 영구적인 색을 낼 수 있는 염료만을 사용하여 세탁이나 햇빛에도 절대로 색이 바래지 않고 쉽게 세탁할 수 있다는 봉텡(bon teint)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디자인 질의 향상을 위해 그 시대의 탁월한 디자이너인 장 밥티스트 유에(J. B. Huet)를 고용하였는데 유에는 다른 디자이너와 달리 디자인을 복사하지 않고 독창적인 디자인만을 창조했다.<sup>14)15)</sup>

죠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프린트직물은 당시 사람들을 완전히 매료시켰다. 베르사이유 궁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마리 앙뜨와네트 왕비를 비롯하여 궁정의 귀부인들이 자주 죠이 프린트를 구입했다고 한다. 그 결과 1783년에는 ‘왕립공장’의 칭호를 받고 죠이 공장이 명성을 얻으면서 국내시장 뿐 만아니라 영국 및 유럽시장을 석권하게 되고 19세기 초에는 프랑스의 경제문화의 상징처럼 찬양되었고<sup>16)</sup> 프랑스를 유럽의 프린트 직물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하였다.

나폴레옹도 1806년, 1810년에 이 공장을 방문해 오버캄프에게 국가 공로 훈장을 수여하였다고 한다. 특히 리옹의 견직물 공업이 18세기 후반의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점차 쇠퇴의 길을 걷는데 반해, 죠이 공장은 융성해 졌다.

### 3. 면 프린트직물의 명칭

17, 18세기경, 면 프린트 직물을 부르는 명칭은 인디엔(indiennes), 트왈(toile), 트왈드조이(toiles-de-jouy), 캘리코(calico), 친츠(chintz), 핀타도스(pintados), 팔람포르(palampre) 등 다양하다. 이들 명칭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유래를 토대로 밝히고자한다.

#### 1) 인디엔 (indiennes)

인디엔(indiennes)은 'Indians'의 프랑스어이다. 프랑스에서는 처음에는 인도에서 만든 친츠 직물과 같이 문양이 있는 면직물을 인디엔으로 부르다가, 프랑스산 모조품 역시 인디엔으로 불렀다. 즉 원산지는 문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다색의 면 프린트 직물을 인디엔(indiennes)이라고 부른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과 콜로니얼 아메리카에서는 주로 인도의 면 프린트 직물의 프랑스산 복제품을 부르는데 인디엔이라는 용어를 썼다.<sup>17)</sup>

#### 2) 트왈(toile)과 트왈드조이(toile de jouy)

트왈(toile)은 페인팅을 위한 캔버스 또는 옷감(cloth)이라는 의미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15세기경 영어에 포함된 단어이다.<sup>18)</sup> 트왈드조이를 축약해서 부르는 명칭으로도 사용하였다.

트왈드조이는 프랑스어인데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toile'은 영어의 'cloth'라는 의미이며 'de'는 'of', 'Jouy'는 프랑스의 북쪽 중심도시인 'Jouy-en-Josas'의 준말이다.<sup>19)</sup> 다시말해서 프랑스의 북쪽의 중심도시인 Jouy-en-Josas의 Jouy-en-Josas 공장으로부터 생산된 옷감이라는 의미로, '조이의 페브릭' 또는 '조이 프린트' 라고도 불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트왈드조이는 조이 공장의 히트 상품이었던 단색의 동판 프린팅 직물에 기인하여, 생산지에 관계하지 않고 단색의 동판프린트로 제작한 직물을 명칭 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동판 프린팅직물은 인테리어용 직물로 인기가 있었다.<sup>20)</sup>

또한 트왈드조이라는 명칭 역시 후에 면 프린

트직물을 통칭하는 것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 3) 캘리코(calico)

캘리코라는 명칭은 면포(綿布)의 생산이 활발하였던 인도의 남서부에 있는 말라바르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 Calicut (현재의 Kozhikode)이라는 도시명으로 부터 연유되었다. 캘리컷 지방은 1498년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가 희망봉을 돌아서 처음으로 인도에 발자취를 남긴 곳이기도 하다.<sup>21)</sup> 영국인들은 1631-1633년 인도의 동인도 회사에 의해 Calicut 지방으로부터 면직물을 들여왔는데 이 면직물을 캘리코라고 부른 것이다. 캘리코는 일반적으로 평직으로 짜고, 프린트하거나, 얼룩을 주거나(stained), 방염하여 문양을 넣은 면직물을 말하며, 직조하여 스트라이프와 체크문양을 넣은 면직물도 캘리코라고 불렀다. <sup>22)</sup>

후에 캘리코는 주로 영국과 콜로니얼 아메리카에서 면 프린트 직물을 통칭적으로 부르는 명칭이었던 것<sup>23)</sup>으로 생각된다.

#### 4) 친츠(chintz)

친츠(Chintz)라는 용어는 17세기 유럽의 무역용어인 chit, chitte, chittes 로부터 유래되었는데, 이와 같은 무역용어는 점박이 직물이라는 뜻의 인도어, chitta 또는 '잡색의 얼룩덜룩한'이란 의미의 힌두어, chint로부터 연유되었다 고한다.<sup>24)25)</sup>

친츠는 원래 인도의 풀을 넣고 페인트하거나 스테인하여(stained) 문양을 넣은 면포를 말했다.<sup>26)</sup> 그러나 17, 18세기에는 프린트되거나 페인팅된 캘리코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으며, 캘리코와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다양한 색깔로 꽃등을 프린트한 인도의 면직물을 의미하기도 하였다.<sup>27)28)</sup>

오늘날에는 인도의 것에 국한 하지 않고 다수의 색, 일반적으로 5개 이상의 색수로 건뢰하게 프린트되고 보통은 광택처리가 되어있는 면포를 가리키기도 한다.<sup>29)</sup>

### 5) 핀타도스(pintados)와 팔람포르 (palampore)

인도의 문양이 있는 면직물 특히 친츠 직물을 포르투갈어로는 핀타도스(pintados)라고 불렀다. 핀타도스는 인도의 손으로 직접 그리는 페인트 기법이란 의미의 pintads라는 용어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생각되며, 팔람포르 (palampore)는 페르시아 및 힌두어인 palangposh 즉 침대커버라는 의미로부터 유래된 명칭이다.

## III. 트왈드쥬이 직물의 제조 방법

쥬이 앵 쥬사스 공장이 제작한 트왈드쥬이는 초기에는 주로 목판 블록 프린팅 기법을 사용했으며, 1770년 동판프린팅을 시도하였고, 1797년에는 롤러 프린팅을 도입하여 생산하였다.<sup>30)</sup>

### 1. 목판 블록 프린팅(wood block printing)

나무에 문양을 조각하고, 목판에 색을 입혀 나무 매로 두들겨 프린팅하는 방법으로 색 도수에 따라 목판수가 결정되었다. 18세기 후반에는 인도의 친츠(chintz)의 점박이 문양과 같은 것을 흉내 내기 위해 목판에 낫쇠 편들을 부착하는 방법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목판의 모퉁이에는 리핏을 위한 작은 편들을 박아 줄 맞추는 작업을 쉽게 하였다.

### 2. 동판프린팅(cooper plate printing)

동판프린트는 음각 인쇄의 한 형태로 가는 선들이 동판에 음각되어 그곳으로 염료가 스며들게 한 뒤 동판의 표면 잉크는 닦아내고 압력을 가해, 굵혀진 선들에 고여 있던 염료에 의해 문양이 표현되는 프린트 기법이다. 쥬이 공장에서는 1770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큰 판형을 사용하여 큰 모티브들의 표현과 음각에 의한 선으로 복잡하고 섬세한 문양을 표현하기에 적합했다. 목판프린팅보다 패턴 반복에 제약을 받지않, 직접 반복을 피하고 원근법적인 배치와

단색의 농담(農談)에 의한 색의 음영(陰影) 처리로 패턴 표현을 하였다. 단색 프린트만이 가능해 다색으로 표현하고 싶은 경우, 목판 프린팅과 페인팅 방법이 병용되었다. 색은 꼭두서니를 원료로 하는 적색, 자색 또는 인디고 청색이 사용되었으며, 바래지 않는 염색기술, 흰 바탕 천에 청색으로 프린팅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쥬이 공장을 유명하게 하였다. J. B. Huet 디자이너에 의해 투시도법에 기초한 풍경 등이 주요 패턴으로 등장한다.

### 3. 동판 롤러 프린팅(cooper roller printing)

롤러프린팅 기법은 동판프린팅기법에서부터 진일보 된 것으로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토마스 벨에 의해 발명된 뒤, 1797년에 쥬이 공장에 도입되었다. 이 방법은 빠른 속도로 더 크고 많은 양의 직물을 프린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19세기에 면 프린트의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가격을 내리게 하였다.<sup>3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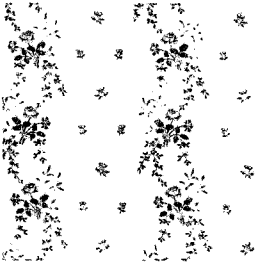
기법 상 1797년 당시에는 다양한 디자인을 표현하기 어려웠다. 특히 색상과 디자인 크기에 제한을 주는 단점과 롤러가 적절히 정렬되지 않아 생기는 기준선의 인쇄가 문제점이었다. 1810-20년대 염료와 기술의 개발 이후 다채로운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었으며, 직물 산업의 양적 생산에 기여하였다.

## IV. 제조 방법에 따른 트왈드쥬이 직물에 나타난 디자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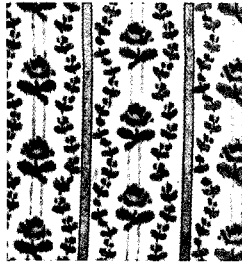
다음은 제조 방법에 따른 트왈드쥬이 직물의 디자인특성을 문양 및 색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 1. 목판 블록 프린팅(wood block printing) 직물에 표현된 디자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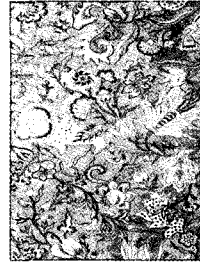
목판 블록 프린팅으로 제작한 직물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디자인 24점을 수집, 분석하였다. 모티브로 사용된 문양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분석한 결과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



<그림1> 1773-1775년 (Garlands of roses and scattered pansies) Josette Bredif (1989). p.68



<그림2> 1774-1778년 (China roses) Josette Bredif (1989) p.90



<그림3> 1783-1789년 (Indian flowers) Josette Bredif (1989). p.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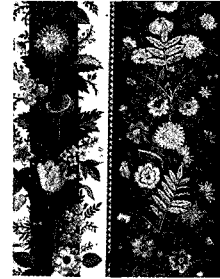
<그림4> 1783년-89년 (Floral) Josette Bredif(1989). p.47



<그림5> 1787년 (Tropical flowers and palm trees) Josette Bredif (1989). p.111



<그림6> 1795년 (Exotic fruits) Josette Bredif (1989). p.107



<그림7> 1803-04년 (Border patters for neckerchief and shawls) Josette Bredif (1989). p.104

할 수 있었다.

1) 꽃과 나뭇잎

꽃 패턴이 잔가지와 나뭇잎과 함께 구불구불한 곡선 트레일을 이루거나 <그림1, 2>, 꽃, 나뭇잎, 환상적인 열매들이 어우러져있는 가지들이 흩어진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그림3,4,5,6>

<그림2>는 이кат 형식의 중국 실크를 흉내 낸 것으로 푸른빛의 두 줄의 선위에 장미꽃을 수직선으로 배열하고, 구불구불 물결치는 듯 한 작은 꽃장식과 밝은 브라운의 좁은 선이 어우러져, 스트라이프 패턴의 감성을 느끼게 한다.

<그림3>과 <그림4>는 블랙과 브라운 등의 어두운 바탕색에, <그림5>, <그림6>은 밝은 바탕색에, 유럽의 자연에서 보이는 장미, 수선화, 히야신스, 튜립, 라일락, 패랭이, 작약 등의 꽃문양과 인도나 열대풍의 이국적 꽃들과 열매가 함께 섞여 자유스럽고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4>는 유에의 작품으로 인도의 인디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도풍이다.

1803년 경 작품인 <그림7>은 목도리와 솔의 보더 디자인으로, 오른쪽 그림은 검정바탕에 사실적인 꽃가지 문양이 돋보인다. 왼쪽 그림은 흰 바탕에 가운데 블랙 스트라이프 안에 꽃망울과 삐죽삐죽한 가장자리를 가진 나뭇잎이 또한 무척 사실적인데, 목판프린팅에 의해 표현하기 힘든 가느다란 선과 같은 표현이 18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섬세해지고 정교해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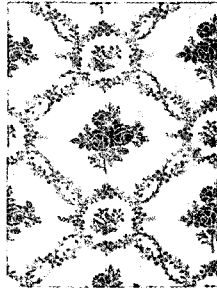
2) 꽃과 동물문

꽃가지와 새, 환상속의 생물(fantastic creature), 그밖에 돌고래, 나비, 코끼리, 말, 사자 등의 동물 문양이 함께 있는 구성이다.

<그림8>은 흐트러진 구성의 꽃가지를 뺏대로 하여 앉아있는 서로 다른 모양의 새와 바탕에 흩어져있는 빨간색의 잔가지가 섬세하게 표현



<그림8> 1775년(Flowers and birds)  
Josette Bredif(1989). p.51



<그림9> 1780년  
(Rose and birds)  
Josette Bredif (1989).  
p.103



<그림10> 1792년  
(Stylized floral and fantastic creature)  
Josette Bredif (1989). p.71

되어있다. <그림9>는 원형의 화환 속에 장미나 무가지 위에 앉아 있는 새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마름모꼴 꽃줄기 안에 장미꽃이 놓여 있다. 원형과 마름모꼴이 어우러져 있는 부케패턴의 구성이다. 이와 같은 문양은 그 당시 실크 브로케이트 직물에서 많이 보였던 문양이다. <그림10>은 도안화된 꽃과 상상의 생물모티브를 다색으로 프린트한 디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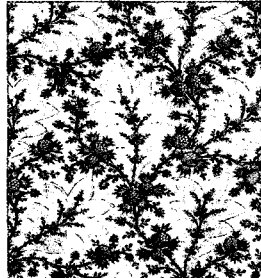
3) 양식화된 자연문과 기하적 패턴

기하학적 문양의 감성이 느껴지는 패턴을 이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림11, 12>는 자연문이 주요 문양이지만 기



<그림11> 1773-1779년  
(The herbal)  
Josette Bredif(1989). p.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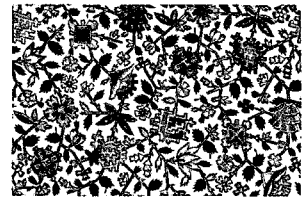


<그림12> 1787년  
(Leaves and fruits)  
Josette Bredif(1989). p.93

하학적 감성이 느껴지는 모티브가 배경에 채워져 있다.

<그림11>은 8가지의 서로 다른 꽃가지(약초)가 벌레가 기어간 흔적을 표현한듯한, 기하학적 느낌의 구불구불한 선 배경에 흩뿌려져 있다. <그림12> 역시 섬세한 점무늬로 장식한 큰 나뭇잎 속에 섬세한 꽃줄기가 표현되어있고, 빨간 열매를 가진 가지와 어우러져 있다. 또한 배경을 노란색 바탕에 흰 점 문양으로 채워 기하학적 감성을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은 디자인은 친츠(chintz)의 점박이 문양을 흉내 낸 것으로도 생각되며, 다채로운 느낌을 유도하려는 시도도도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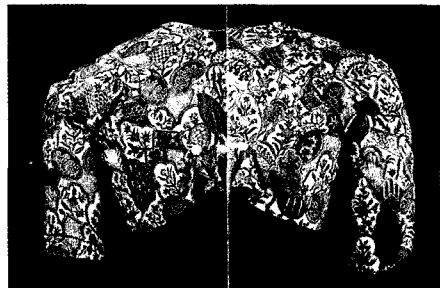
<그림13>은 주요문양인 꽃들을 딱딱하게 도안화하고 나뭇가지를 뿔뿔하게 표현하여 기하학적 패턴에서 느끼는 감성을 느끼게 한다. 이 작품은 9가지 색상으로 리핏이 31×40.5로 큰 블록을 사용한 듯하다. 이는 1790년대 작품으로 이전의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꽃가지 문양과 같이 낭만적 스타일과는 좀 다르게 표현된 패턴으로, 18세기 후반 탈 낭만주의적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13> 1790-1791년  
(Broken sticks)  
Josette Bredif (1989). p.63 .

4) 스케일 패턴

양식화된 꽃과 나뭇잎을 화려하게 표현한 부채나 가리개(screen) 또는 중국의 기와 모티브를



<그림14> 1790-91년 (Chinese imbricated scales)  
Josette Bredif (1989). p.119





<그림15> 1792년 (Fans)  
Josette Bredif (1989). p.116

비늘(scale)처럼 한 방향으로 연결한 독특한 구성이다.

<그림14>는 도식화한 꽃과 잔가지 및 기하학적문양을 묘사한 중국기와들을 스케일처럼 겹쳐 구성한 자켓이다. 이와 같은 이국적 문양은 의류용 패턴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그림15>는 양식화된 꽃과 나뭇잎

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부채(fan)들을 스케일처럼 구성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양구성은 중국의 기와 문양 또는 비늘 문양으로 불리기도 했다.

5) 이국적 풍경

중국과 식민지 시대의 아메리카, 터키 등의 이국풍경을 모티브로 한 유형이다.

<그림16>은 중국인의 일상생활을 묘사한 것으로 단색으로 프린트되어져 있지만 목판프린팅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따라서 동판프린팅 기법과 선의 표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색이 아닌 단색으로 목판 프린트 된 흔하지 않은 자료 중의 하나이다.

<그림17> 역시 8가지 색으로 된 중국인의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그림18>는 중국의 목판화에서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중국화병과 중국풍의 꽃들이 어우러져 있다.

이처럼 중국적인 것을 모티브로 한 것을 시노아서리라고 불렀는데, 중국인들의 의상이나 모자, 건축양식들의 이미지를 디자이너의 상상에 의해 모티브화한 것이 많아, 중국인들의 실제 생활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그림19>은 식민지시대의 미국풍경을 묘사한 작품이다. 미국국기와 St. George의 깃발이 교차되어 꽃혀있고, 나무 꼭대기에 자유를 상징하는 모자가 놓여있는 나무 주위를 흑인 노예들이 빙 둘러 춤추고 있으며, 이국적인 천막집과 카누 등을 볼 수 있다.

2. 동판프린팅(copper plate printing) 직물에 표현된 디자인 특성

트왈드 쥘이(Toile de Jony)의 동판프린팅 디자인 23점을 분석하여 4가지로 유형화시킬 수 있었다.

1) 그리스 신화나 역사 속의 인물 또는 에피소드

그리스로마 신화나 역사 속의 인물 또는 역사적 에피소드를 묘사한 것이 많았다.

<그림20>은 장 자크 루소의 무덤(The tomb of Jean-Jacques)이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레드컬러로 동판 프린팅된 작품이다. 원근법적인 배치로



<그림16> 1760-1764년 경  
(Chinaman with a wheelbarrow)  
Josette Bredif (1989). p.123



<그림17> 1780년  
(Chinese scenes)  
Josette Bredif (1989).  
p.124



<그림18> 1780년(Chinese  
vases chinois flowers)  
Josette Bredif (1989). p.115



<그림19> 1780년  
(Dance of the blacks)  
Josette Bredif (1989).  
p.125



<그림20> 1778-83년  
(The tomb of Jean-Jacques  
Rousseau) Josette Bredif  
(1989).p. 56



<그림21> 1783-89년  
(The four elements)  
Josette Bredif (1989). p.133



<그림22> 1789-92년 (The  
crowning of the Rose-Maiden)  
Josette Bredif (1989).p.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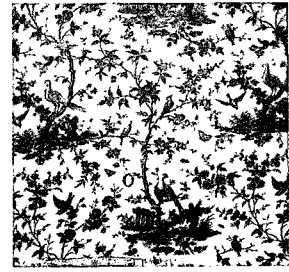
<그림23> 1790-91년 (Louis XVI,  
restorer) Josette Bredif  
(1989).p.145



<그림24> 1770-83년  
(Children' games)  
Josette Bredif (1989). p.54



<그림25> 1795년  
(The offering of love)  
Josette Bredif (1989).p.55



<그림26> 1789년  
(Birds on a flowering tree)  
Josette Bredif (1989).p. 129

1778년 사망한 루소의 무덤과 작은 분수, 풍차, 폐허가 있는 상상의 전원풍경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21> 역시 레드컬러의 동판 프린팅 직물로, 그리스신화를 주제로 선과 음영에 의한 패턴 표현이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디자인이다. 신화적 장면을, 물, 불, 대지, 공기 등의 4가지 요소를 주제로 표현하고 있다. 바다의 요정인 Nereids와 반인반어인 트리톤(Tritons)들이 파도 속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그린 물(water), 로마신화에 나오는 대장장이의 신인 Vulcan이 대장간에 있는 모습을 묘사한 불(fire), 두 마리의 사자가 끌고 가는 마차에 앉아 있는 풍작의 여신인 Ceres와 주신인 바커스를 표현한 대지(earth), 바람의 신인 아이올러스를 그린 공기(air) 등의 4 요소로 구성된 묘사에서 신교전주의 양식을 느낄 수 있다.

<그림22>는 Noyon의 성직자 겸, Salency의 군주였던 Medardus 경에 의해 제정된 풍습을 묘사

하고 있다. 매년 그는 그의 영토에서 가장 덕망 있는 여성에게 화관과 25리브르를 주었는데, 그 장면을 패턴화 한 것이다. 유에의 작품으로 죠이 공장의 도장이 찍혀있다.

<그림23>는 프랑스의 역사적 인물을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과 함께 묘사하였다. 루이 16세는 앉아 있고, 그의 발아래 사자가 있다. 그는 로마의 갑옷을 입고 있고, 로마신화에 나오는 군신인 Mars와 전쟁의 여신인 Minerva가 함께 수행하며 자유를 환영하고 있다.

## 2) 일상생활과 전원 풍경

큰 스케일로 전원풍경 속에 일상의 삶을 느낄 수 있는 모티브들의 표현이 많았다.

유에(Huet)의 대표적 작품인 '사계(The delights of the four seasons)'에서는 전통적인 전원에서의 활동과 놀이를 표현한 것으로 143×133.6cm의 크

기이며, 5월의 베이폴 주위에서 춤을 추는 봄, 수확기인 여름, 포도를 수확하는 가을, 미끄럼을 타는 겨울을 각각의 상징적 모티브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24>는 커다란 나무를 차지하고 있는 어린 사수와 그의 활, 시소놀이 하는 아이들과 개가 끄는 수레를 탄 아이들의 천진함 등을 사실적인 나무 모티브와 함께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림25>는 양을 돌보는 소년과 소녀를 낭만적으로 묘사한 모티브와 춤추는 아이들을 위해 피리를 불어주는 사람, 큐피드 동상에 양을 헌양하는 모습 등 일상생활의 모습을 자연스런 풍경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밖에 쥘이 공장에서 프린팅하는 과정을 묘사한 작품도 있다.

또한 <그림26>가 같이 평화로운 전원풍경을 나무와 새 등의 동물모티브로만 묘사한 것도 있었다.

### 3) 오페라나 소설의 스토리를 표현한 구성



<그림27> 1815년 (Robinson Crusoe)  
Josette Bredif (1989). p.139

<그림27>은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 속의 장면을 적색으로 프린팅 한 벽걸이로, 19세기 초의 작품이어서 그런지 18세기 말 쥘이공장의 동판프린팅에 표현되는 선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음영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뗏목을 타고 섬에 다가가는 로빈슨 크루소의 모습과 도착한 이후의 외로운 생활상, 발자국을 찍는 모습 등의 문양이 특히 섬세하다.

그밖에 오페라 ‘피가로(Figaro)의 결혼’을 모티브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여우와 까마귀’, ‘늑대와 황새’를 소재로 한 우화를 커다란 꽃장식과 함께 묘사한 작품도 있었다.

### 4) 이국적 생활



<그림28> 1775년 (The Chinese)  
Josette Bredif (1989). p.148



<그림29> 1783년  
(America pays homage to France, red color)  
Josette Bredif (1989). p.141

중국인의 생활모습을 표현한 시노서리와 유럽인의 정서로 상상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콜로니얼 아메리카, 고대 로마의 기념물들에 있는 문양의 재현, 동양적인 풍경 등 이국 취향이 많이 표현되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4대륙을 묘사한 작품<sup>32)</sup>도 특이하다

<그림28>은 레드컬러로 중국인의 정원 풍경을 묘사한 것이며, <그림29> 역시, 레드컬러로 콜로니얼 아메리카에서 프랑스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미국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3. 동판 롤러 프린팅(cooper roller printing) 작품에 표현된 디자인 특성

쥘이 공장에서 생산된 롤러프린팅작물 13점을 고찰, 분석하여 다음의 3가지로 유형화시킬 수 있었다.

### 1) 틀(frame)에 의한 면 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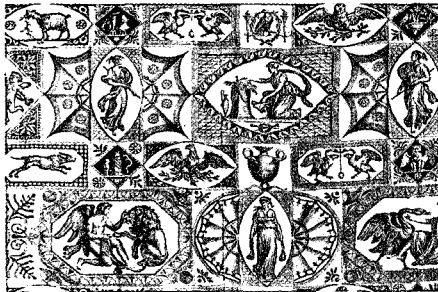
장식적인 틀 안에 신들의 모습, 신화적 장면, 영웅의 모습 등의 상징적 일러스트를 넣은 구성이다. 1800년 대 초의 동판 프린팅에 의해 제작된 유예의 작품<sup>33)</sup>에서도 볼 수 있는 구성으로 19세기 초에 유행하였던 모티브로 생각된다.

<그림30>은 신화 속에 나오는 3개의 장면을 다양한 모양의 틀 속에 가두어 표현하고 있다. 첫째, 백조의 모습을 한 제우스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Clytemnestra의 어머니 Leda, 둘째,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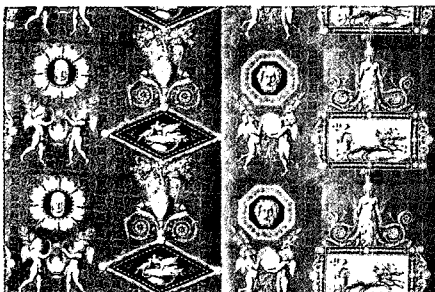
한 비너스의 모습, 셋째, 사자를 고쳐주고 있는 이집트로 도망친 로마의 전설적인 노예 안드로클레스(Androcles)와 그밖에 동물과 화병 등이 틀 안에 묘사되어져있다.

<그림31>은 틀 안에 가두어져 있는 문양과 그렇지 않은 문양이 조화되어져있다. 모이 먹는 비둘기들과 멧돼지가 끄는 마차를 모는 아기 천사 문양이 각각 마름모와 직사각형 틀 안에 묘사되어 있다. 원형과 8각형 메달 안에는 신화 속 인물의 얼굴조각상이 그려져 있으며, 하반신이 아라베스크로 장식된 반인의 여자와 아라베스크 문양이 있는 꽃이 담긴 화병이 어우러져있다. 롤러프린트와 목판프린트를 섞어 사용한 것으로 목판프린팅으로 엘로우 컬러를 찍었다.

아라베스크 문양, 넝쿨꽃 등으로 프레임을 장식하거나, 바탕 배경을 기하적인 마름모, 격자선 등으로 채우고 있다. 이는 단색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거나 반복할 때 생기는 선을 감추기 위해 고안 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30> 1806년 (The lion in love)  
Josette Bredif (1989). p.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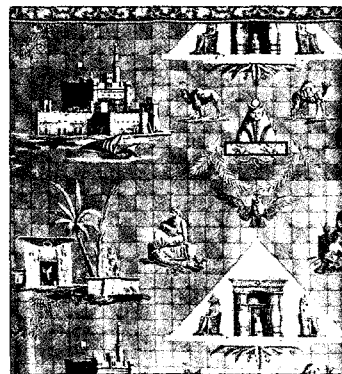
<그림31> 1816-18년(Doves and boars) Josette Bredif (1989). p.87

## 2) 이국적 생활상과 역사적 기념물

동판프린팅에서 보였던 이국적 생활상의 표현이 풍경화처럼 구성된 것에 반해, 롤러 프린팅은 기법상의 제한점 때문에 모티브를 단조롭게 하여 기하학적 문양이 있는 바탕 위에 부분 부분 배치한 구성이 특징적이다. 중국, 티벳 등의 동양과, 고대로마, 스위스, 이집트, 폼페이 등의 풍경 또는 역사적 기념물의 묘사가 많았다. 그 시대에 폼페이 발굴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곳에서 발굴된 유물이나 과거 로마문화 등에 관심이 집중되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림32> 1799년 (Chinese soldier)  
Josette Bredif (1989). p.149



<그림33> 1808년  
(Egyptian monuments)  
Josette Bredif (1989). p.150

<그림32>는 중국의 풍경과 성을 지키는 군인들을 얼굴 표정까지 섬세하게 그리고 있는데, 부드러운 선을 사용하여 음영이 번지는 듯한 특징을 나타낸다.

<그림33>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낙타, 스펅크스와 정교한 문자문이 있는 오벨리스크 등이 묘사된 작품이다.

### 3) 일상생활



<그림34> 1815년  
(Hunting at Jouy)  
Josette Bredif (1989), p.158

그 시대의 생활모습을 문양으로 도안화 하여 나뭇잎, 다이아몬드, 트라이앵글 등의 기하학적 선이나 작은 모티브로 가득 채운 바탕 위에 배치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그림34>는 ‘쥘의 사냥’이라는 작품인데 말을 타고 사냥하는 모티브와 풍경 그림이 격자선의

배경에 놓여있다.

<그림35>는 춤추는 젊은 여자, 인형 극장, 게임을 하는 남자들의 모티브로 그 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하며 점 문양을 가진 격자선이 배경에 깔려있다.



<그림35> 1818년 (Monuments of the south of France)  
Josette Bredif (1989), p. 156

## V. 결론

본 연구는 프린트 디자인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17-18세기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의 면 프린트 직물산업과 면 프린트직물을 지칭했던 다양한 명칭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18세기 유럽의 프린트 직물의 유행을 선도하였으며, 현재의 프린트 디자인의 모티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쥘이 앙조 사스 공장의 트왈드쥘이 직물을 생산 기법에 따라 분류하고, 문양과 색 중심으로 분석하여 디자인 특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얻어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유럽의 근대 프린트 기법의 발달에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은 인도의 다양한 기법으로 염색된 면직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그 당시 유럽에서 면 프린트직물을 지칭했던 다양한 명칭들은 원료가 생산되었던 지역명(calicut-calico), 국가명(Indians-Indiennes), 생산 공장명(toile de jouy- toile de jouy), 문양의 외관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chitta-chintz), 염색기법을 지칭하는 단어(pintads-pintados), 상품의 용도명(palanposh-palampore) 등으로부터 유래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후에, 다양한 명칭들은 구별 없이 면 프린팅 직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용되었는데, 특히 프랑스에서는 다색의 프린트직물은 원산지에 관계 없이 인디엔으로 불렸으며 영국과 콜로니얼 아메리카에서는 캘리코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트왈드쥘이라는 명칭은 18세기 후반, 쥘이공장의 단색의 동판프린트직물이 유명해 지면서 단색의 동판프린트를 지칭하는 것으로 확산된 것으로 생각된다.

3. 목판 블록 프린팅 기법은 1760년 경부터 1805년 경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고찰되었다.

주로 화려한 다색의 색상으로 프린팅 되었으며, 문양의 유형은 ‘꽃과 나뭇잎으로 이루어진 구성’, ‘꽃과 동물문으로 이루어진 구성’, ‘양식화된 자연문과 기하학적 패턴’, ‘스케일 패턴의 구성’, ‘이국적 풍경의 구성’ 등 5가지로 분류되었다. 가장 많이 쓰인 모티브는 화려한 꽃가지였다.

4. 동판프린팅 기법은 1770년경부터 1790년 중반까지 가장 많이 사용 되었으며 1800년대 초기에도 간혹 사용되었다. 단색의 레드 계열의

컬러를 가장 많이 쓴 것으로 고찰되었다.

문양의 유형은 ‘그리스 신화나 역사 속의 인물 또는 에피소드를 표현한 구성’, ‘일상생활 전원 풍경을 묘사한 구성’, ‘오페라나 소설의 스토리를 표현한 구성’, ‘이국적 생활상을 표현한 구성’ 등 4가지로 분류되었다.

이야기가 담겨있는 에피소드를 사람, 동물, 건물, 전원풍경이 어우러지게 묘사한 회화풍의 문양 특성을 보였다. 기법 상 패턴을 리פט하는데 제약을 받는 대신, 큰 판형의 사용이 가능하고, 음각 선으로 문양을 나타냈으므로 다른 기법에서 볼 수 없는 큰 규모의 문양을 섬세하게 회화풍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5. 롤러프린팅기법은 1800-1820년 전후로 가장 많이 사용 되었으며, 그린, 블루, 엘로우, 레드, 브라운 계열의 단색 컬러가 많이 쓰였는데, 동판프린트에 사용한 색보다 다채로운 컬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염료가 많이 발달 된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문양의 유형은 ‘틀(frame)에 의한 분할 구성’, ‘이국적 생활상과 역사적 기념물을 표현한 구성’, ‘일상생활을 표현한 구성’ 등 3가지로 분류되었다.

문양 특성은 동판프린팅과는 달리 문양을 3-4가지의 주체별로 단조롭게 도식화하였으며, 리פט의 반복이 짧은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특이한 것은 여백을 기하학적 선으로 채웠는데, 문양이 반복 될 때 생기는 선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6. 3종류의 프링팅 기법의 직물에서 모두 보여진 문양은 시노아서리와 같은 이국 풍경이었으며, 전반기에는 인도풍과 유럽풍의 꽃가지 문양이 주로 표현되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스토리가 있는 장면의 표현이 많은 것으로 고찰되었다.

## 참 고 문 헌

- 1) Jniffer Harris (1993). *Textiles 5000 years*. London: Harry N. Abrams, Inc. New york. N. Y. pp.35-42.
- 2) Kax Wilson, 박남성, 차임선 옮김 (2000). *직물의 역사*. 서울: 예경, p.122.
- 3) Belind, T. Orzada (1998). *Cross-cultural influences on fashion prior to the Twentieth Century*. University of Delaware, p.1.
- 4) Kendra Van Cleave. *Pretty Prints*. Clever Cottons: 18h Centry Fabric, p.1.  
자료출처: [www.gbacg.org/Articles/](http://www.gbacg.org/Articles/)
- 5) Kax Wilson, 박남성, 차임선 옮김 (2000). *Op. cit.*, p.245.
- 6) *Ibid.*, p.246.
- 7) *Ibid.*, p.234.
- 8) 네이버 백과사전. 중상주의. 자료출처: <http://100.naver.com/>
- 9) 권복주 (1988). 근대 직물 나염 기법의 변천에 관한 고찰. *한양여자 대학 교수 논문집 11*, p.590.
- 10) Kax Wilson, 박남성, 차임선 옮김 (2000). *Op. cit.*, p.244.
- 11) 권복주 (1988). *Op. cit.*, p.590.
- 12) Kendra Van Cleave. *Op. cit.*, p.2.
- 13) The wander of the 'Indiennes' in France (2002), p.2.  
자료출처: <http://100associes.free.fr/Archives/Expo/Indiennes/IndiennesAnglais.html>
- 14) Margaret A. Fikioris (1970). Neoclassicism in Textile Designs by Jean- Baptiste Huet. *Winterthur Portforio Vol 6*, p.77.
- 15) 日本纖維意匠 センタ (編) (1975). *Textile Print 略史(3)*. 日本纖維意匠 センタ, p.37.
- 16) 城一夫 (1982). *Print 柄の種類と變遷 (8)*. 日本纖維意匠 センタ, pp.43-44.
- 17) Kendra Van Cleave. *Op. cit.*, p.2.
- 18) Toile de Jouy. Encyclopædia Britannica Article  
자료출처: <http://www.britannica.com/eb/>
- 19)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2003). Definition of Toile de Jouy. Published by Houghton Mifflin Company.  
자료출처 : [http:// www.thefreedictionary.com](http://www.thefreedictionary.com)
- 20) Wikipedia®. Toil de Jouy. Wikimedia Foundation, Inc.

- 자료출처: <http://en.wikipedia.org/wiki/Toile>
- 21) 구희경 (2003). 켈리코 프린팅 패턴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5(3), p.90.
  - 22) Kendra Van Cleave. Op. cit., p.3.
  - 23) Ibid., p.1.
  - 24) Kax Wilson, 박남성, 차임선 옮김 (2000). Op. cit., p.126.
  - 25) Kendra Van Cleave. Op. cit., p.3.
  - 26) 권복주 (1988). Op. cit., p.580.
  - 27) Kendra Van Cleave. Op. cit., p.3
  - 28) Wikipedia®. chintz. Wikimedia Foundation, Inc.  
자료출처:<http://en.wikipedia.org/wiki/Chintz>
  - 29) 권복주 (1988). Op. cit., p.581.
  - 30) Jouy en Josas. Toile de Jouy Museum (PDF File), p.3.  
자료출처: [http:// www.JouyenJosas.fr/](http://www.JouyenJosas.fr/)
  - 31) Watt, Melinda (2003). Textile Production in Europe: Printed, 1600-1800. In Timeline of Art History.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자료출처: <http://www.metmuseum.org/>
  - 32) Josette Bredif (1989). *Printed French Fabrics: Toiles de Jouy*.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 Inc: New York, p.56.
  - 33) Ibid., p.152.